코로나 확연한 감소세…질병청 "유행 정점 완전히 지나가"

광주, 확진자·감염 지수·병상 가동률 감소…점차 안정화
국민 31.7% 확진…집단감염 감소에도 60대 이상은 증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연히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정점이 완전히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내주부터 모임·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와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1만 2573명이다. 전날 1만 5855명보다 3282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광주의 하루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지난달 29일 1만 1362명을 기록한 뒤 줄곧 1만명 아래로 유지됐다. 지난 11일에는 3979명까지 떨어졌으며 12일 6659명, 13일 7408명을 기록했다.

광주 누적 확진자는 45만 7694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 144만1611명 대비 31.7%를 차지했다. 시민 3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한 것이다.

광주는 이날 현재 14개 전담 병원, 2개 생활치료센터에 확보한 973개 병상 가운데 386개만 이용중이며, 가동률도 39.7%에 불과하다. 다만 중증 병상은 53.7%, 준중증 병상은 95.6%로 아직까지 가동률이 높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월 말 1.45, 2월 말 1.24, 3월 말 0.97에서 이달 들어서는 0.86으로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다만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1~2월 10.8%, 3월 16.4%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20%에 육박해 방역 당국은 고령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지역도 이날 0시 기준 전날(8447명)보다 1535명이나 줄어든 6912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순천 1210명, 여수 998명, 목포 850명, 광양 615명, 나주 467명, 무안 343명, 해남 262명, 고흥 214명 등이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만 8443명으로, 전날 19만 5419명보다 4만 6976명이나 줄었다.

1주일 전인 7일 22만 4788명보다 7만 6345명 적고, 2주 전인 지난달 31일 32만695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목요일 발표(집계일로는 수요일) 신규 확진자가 2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3일(19만 8799명) 이후 6주만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을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국과 연구진들은 지금의 유행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3.13~19) 정점기에는 40만 4604명이었으나 4월 첫째주(4.3~9)에는 21만 8490명으로 정점기의 절반(54%) 수준이 됐다.

이번 주의 경우 5일간(4.10~14)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만 1996명이다. 정점기의 40% 수준으로, 2월 말과 유사하다.

다만 아직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적지 않은 데다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고 신규 변이와 재조합 변이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전체 확진자 중 '감염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20%대로 높아져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조정'이 아닌 사실상 '해제'안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 수칙을 제외하고 사적모임·영업시간에 관한 제한이 모두 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14일 오후 광주시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첫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청사진

5개년 계획 수립…100개소 육성, 연매출 1000억 창출 목표

전남도는 환경·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확산과 유기농 생태체험마을을 활용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제1차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종합계획 목표는 2026년까지 ▲현재 34개인 유기농생태마을을 100개소로 육성 ▲유기농 융복합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유기농생태마을을 100개소까지 늘려 도내 총 연매출 1000억원 달성 ▲농업·농촌 서포터즈 1만명 육성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026년까지 243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개 분야 총 52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친환경·저탄소 생태마을 100개소 육성 1011억원 ▲유기농 융·복합 산업생태계 구축 942억원 ▲전남형 유기농 생태마을 어울림 협력체계 활성화 73억원 ▲농업·농촌 가치 확대 405억원 등이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이끌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마을을 대상으로 생산·유통시설 등 마을 주민이 자체 발굴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유기농업 마을의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유기농산물 생산, 다양한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기농 레스토랑, 자연치유, 생태교육, 민박, 도농 교류 등을 통해 잘 사는 농업·농촌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유기농 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도내 유기농 생태마을의 연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남형 유기농 생태마을 어울림 플랫폼 구축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 단위 유기농 생태마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식약처,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
서경덕 "있을 수 없는 일…국민 실망"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정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서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 식약처 유튜브 영상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한 사실을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고발했다.

지난 2월 10일 식약처가 유튜브에 게시한 '임신부 건강을 위한 나트륨 다이어트-덜 짜게 먹기 1편'(www.youtube.com/watch?v=VIXoUCFA1tk) 제목의 중국어 자막 영상에서 '파오차이' 표기가 두 번 등장한다. 파오차이는 양배추나 고추 등을 염장한 중국 쓰촨(四川) 지역의 절임 식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우리 고유의 발효음식인 김치의 중국어 번역과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했다.

서 교수는 "같은 정부 기관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식약처는 김치에 관련한 다양한 일을 진행하는 기관이기에 이번 일로 국민들은 더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지속해서 '김치 공정'을 펼친다는 주장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의 김치 도발 기사,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의 김치 왜곡 등을 '동북공정'에 빗대 '김치 공정'으로 부른다.

서 교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으로 중국의 왜곡을 바로 잡아줘야만 한다"며 "중국 측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국내에서 잘못 사용하는 표기 역시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군, 외출·면회·전화·조기제대 위해 뇌물

北인권정보센터 "사상교육 강화하지만 외부문물 통제 역부족"

북한군 내에서 뇌물 제공과 착취가 일상적이고 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김정은 시기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기 군 내부에서 "외출, 면회, 전화 사용은 물론 조기 제대를 위해서도 정치지도원이나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은 집권 직후, 군부대 내 비리를 척결할 것, 일상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를 근절할 것에 대해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방침의 효과가 일정 기간만 지속되고 있어, 정기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늘었다는 점"이라며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안전도구의 미비, 2시간 이내의 수면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타 등 가혹행위는 일부 줄어들기는 했어도 여전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북한군은 사상 교육을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2시간까지 할 정도로 정신 통제와 충성 강요에 힘을 쏟지만, 쏟아지는 외부 문물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증언도 있었다. /연합뉴스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당일처리. 010-7207-9500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30년쯤전에 연락이후 소식을 모르는
기성권(승권) 67년생 남 찾습니다
친어머니 이 수 연
아버지는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오래전사망
동생 이 재 선 HP. 010-5591-7208
연락 바랍니다

분할합병공고

2022년 4월 12일 주식회사 한국전력산업공사(갑)과 주식회사 호남전력(을)은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 부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갑" **주식회사 한국전력산업공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3길27-18 (중화산동2가)
사내이사 정 유 나

"을" **주식회사 호남전력**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1길 18
대표이사 박 석 윤

분할합병공고
(건설업분할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서울토건(이하 '갑'이라 한다)은 2022년 4월 1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영업의 일부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영업부분)으로 현진건설(주)(가칭, 이하"을"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을 상법 제527조의 5와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아래 표시한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서 또는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할할 건설업의 종류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번호:전남 제97-10-152)
- 석공사업 (면허번호:전남 제04-39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번호: 전남 완도2003-16-01호)
2. 분할예정일 : 2022년 5월 16일
3.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또는 이의 제출 기한 및 장소
가. 기 한 : 2022년 4월 16일부터 2022년 5월 16일
나. 제출장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도암길 139-30, 202호
(주)서울토건 (대표이사 서은미)
4. 분할법인의 주된 영업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도암길 139-30, 202호
(주)서울토건 (대표이사 서은미)

2022. 4. 1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도암길 139-30, 202호
(주)서울토건 대표이사 서 은 미

장성군 공고 제2022 - 321호

장성 군관리계획(유통및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장성 군관리계획(유통및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장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유통및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조서 : 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1	수도공급설비 (취수시설)	황룡면 장산리 9-23번지 일원	1,442	감)1,442	-	건설부 443호 (1984.11.09) 장성 2020-111호 (2020.07.3)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도공급설비 (취수시설)	·수도공급설비 (취수시설) 폐지 - 면적 : 1,442㎡	·수도공급설비의 기능 상실 및 취수시설 운영이 폐쇄되어 결정 목적을 상실한 수도공급시설에 대해, 향후 시설 철거 · 정비를 통한 공공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및공급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2. 관련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2. 4. 15. ~ 4. 29.(15일간)**
나. 열람장소 : 장성군 도시재생과
4. 주민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주민열람 공고 시작일 부터 열람기간 만료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장성군 도시재생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기간 내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성군 도시재생과(☎061-390-7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주남영(650510-X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소호7길 19, 1동 208호 (소호동, 목련아파트)
• 등록기준지 : 전남 여수시 화치동 571번지

피상속인 망 주남영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느단153호로 신청하여 2022년 4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4월 15일

• 상속인 : 주석현(940708-XXXXXXX) 광양시 광장로 70, 210동 2308호 (중동, 성호아파트)
• 신고기간 : 2022. 4. 15. ~ 2022. 6. 25.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주석현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임순석(450715-XXXXXXX)
• 최후주소 : 나주시 왕곡면 구산길 55-10 (장산리)

피상속인 망 임순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19호로 신청하여 2022년 4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4월 15일

• 상속인 : 1. 미합중국인 임선화(1969년 11월 22일 생)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부에니파크 시 9가 스트릿 7211
2. 임정화(711207-XXXXXXX)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92, 208동 1002호 (우만동, 주공아파트)
3. 임대빈(740110-XXXXXXX) 영천시 중앙동1길 102-11, 101동 604호 (문내동, 대동다숲아파트)
4. 임광빈(761212-XXXXXXX)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46번길 121, 504호 (곡반정동)
• 신고기간 : 2022. 4. 15. ~ 2022. 6. 25.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3. 임대빈의 주소

정정공고

본지 2022년 4월 13일자 게재된 빛고을중공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하남금속 합병공고 내용 중 빛고을중공업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빛고을중공업으로 정정 공고함.

2022년 4월 15일

정정공고

본지 2022년 4월 13일자 게재된 주식회사 하남금속 주권제출공고 내용 중 빛고을중공업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빛고을중공업으로 정정 공고함.

2022년 4월 15일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유진(이하"갑"이라 한다)과 단이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2022년 04월 14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익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2년 4월 15일

"갑" **주식회사 유진**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38, 1층
대표이사 정 종 민

"을" **단이정보통신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초당로7번길 11(매곡동)
대표이사 이 유 선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2년 4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0원을 금 9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보통주식 10,0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0,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2년 4월 15일
주식회사 하나테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금촌길 1-22
대표이사 심 상 룡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종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